



레이다

신바람 벼농사

수지맞고 짓기 편하며 자랑스러운 농사 소규모 가족농에서 규모화 · 기계화로 전환돼야

세 계는 각 국가마다 주식(主食)이 있다. 주식은 그 국가의 지형적 위치, 기상, 민족의 식생활문화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즉 서구 구라과 민족의 빵을 재료로 하는 밀,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쌀을 재료로 하는 밥과 떡, 열대 사막 아프리카 지방의 전분작물인 마(yam)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민족의 주식에 해당하는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는 약 4천년에 달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정착되어 왔다. 이는 여름철에 연간 강우량의 약 60%나 되는 많은 비가 내리고 매년 8~9월의 몬순기후에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열대성 태풍이 닥쳐와 고인 물에 잘 적응하며 자라는 벼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벼농사는 물을 가두어서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장해가 없고 토양 속의 양분을 골고루 흡수이용 할 수 있어서 매우 고르게 키울 수 있으며 다른작물과 달리 손쉽게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급속한 도시 산업화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빠져나가 지금은 벼농사가 고령자나 부녀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벼농사도 과거 농가당 경작면적이 1정보내외의 가족농과는 달리 세계 무역시장 변화에 따라 2,000년대에는 농업도 산업화(Agribusiness)로 점차 바뀌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공급하는 벼농사도 이제는 과거 힘들고 수입이 적은 소규모 가족농에서 규모화 · 기계화로 수지 맞고 짓기 편한 신바람나는 벼농사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식을 공급하는 벼농사가 신바람 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지 맞고 짓기 편하며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가격파동 없이 안정적 생산 가능
10ha에 소득은 6천5백70만원**

무슨 사업이든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우선 수지가 맞아야 한다. 벼농사 또

한 마찬가지이며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벼농사는 우선 가격파동이 없다. 다른 작목과는 달리 심을 때 이미 가격, 판로 등이 정해져 있어서 생산자로서도 매우 안정적인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정수매제는 쌀생산자에게 간접적으로 쌀값 상승이란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편이며, 우리 나라 농업정책에서도 주곡인 쌀산업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벼농사 경영수지를 보면 표 1에서의 같이 단보(300평)당 쌀생산량이 4백 54kg이다. 이는 지난 10년간(87~96) 전국 농가 평균수량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80kg을 1가마로 나뉘볼 때 5.7가마가 된다. 쌀가격을 1가마(80kg)당 15만원으로 볼때 조수입은 85만5천원이 된다. 생산비 41만2천원(간접생산비인 토지 및 자본용역비 포함, '97 농진청), 경영비 19만8천원(직접생산비인 농구비, 노력비 등)을 적용하여 볼때 소득(조수입 - 경영비)이 65만7천원, 순수익(조수입 - 생산비) 44만3천원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영수지를 말할때는 경영비를 적용하는 소득으로 주로 표현한

다. 즉 10a당 벼농사로 인한 소득은 65만7천원, 다 시말해 벼농사를 과거처럼 1ha지었을 경우 6백57만원이지만 규모화를 시켜 10ha 벼농사를 지을 경우 소득은 6천5백70만원이 된다. 논 10ha(3만평)는 최근 정부의 농지규모화사업으로 많은 농기들이 10ha 이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즉 벼농사 10ha를 지을 경우 벼농사 1모작으로도 소득 6천5백70만원이 된다. 이를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볼때도 경영자의 년수입보다 적지 않은 수준이다. 쉽게말해 벼농사 10ha만 지으면 중소기업 사장과 다름없는 소득이 되는것이다. 더욱이 벼농사는 노동력이 5월부터 10월까지만 집중되어 있어 1년중 실제로는 6개월만 벼농사에 종사하면 된다.

특히 이 기간중에서도 모내기 및 수확기에 노력이 집중되어 있어 이때만 노동력의 효율이 높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간 외에는 답리작 보리재배 등으로 부가적인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농가도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렇듯 벼



표 1. 벼농사 경영수지

경영규모	쌀생산량 ¹⁾		쌀가격 ¹⁾ (원/가마)	조수입 ²⁾ (A)	경영비 ²⁾ (B)	생산비 ²⁾ (C)	소득 (A-B)	순수익 (A-C)
	kg	가마						
10a (300평)	454	5.7	150	855	198	412	657	443
1ha (3,000평)	4,540	57	"	8,550	1,980	4,120	6,570	4,430
10ha (30,000평)	45,400	570	"	85,500	19,800	41,200	65,700	44,300
20ha (60,000평)	90,800	1,135	"	170,250	39,600	82,400	131,400	88,600
70ha (210,000평)	317,800	3,973	"	595,950	138,600	288,400	459,900	310,100

1) 쌀시장가격('97. 8 현재)

2) 10년간(87~96) 전국 농가 평균수량 적용

3) '97 농림부 통계자료

농사는 일정규모 이상만 확보하면 어떤 사업보다도 경영수지면에서 매우 유리하여 수지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농작업 기계화를 97%로 짓기편해 홀로 벼농사 가능케한 승용관리기

젊은층에서의 농사기피 현상은 무엇보다도 짓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농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분 소규모농에서도 가족 모두가 동원되는 등 전작업과정이 인력에 의존하

료 또는 농약 살포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개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일본에서도 논전용방제기(Maruyama社 제작)를 본적이 있어 우리나라 논 포장필지 크기에 적합한 한국형 다목적 승용관리기 개발을 제안, 농촌진흥청과 아세아종합상사와의 공동연구협약에 의해 96년부터 개발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현장 농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농림부 신기술 기종으로도 채택되어 현재 농가에 보

표 2. 벼농사의 농작업 기계화율

(단위 : %)

연 도	주 요 농 작 업				
	경운·정지	이 양	방 제	수 활	건 조
'91	87	85	93	80	16
'92	94	89	92	84	18
'93	96	92	95	87	21
'94	96	93	94	91	26
'95	97	97	97	95	32
'96	98.0	97.3	97.6	96.1	34.4

* 자료 -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97)

여 왔다. 그러나 최근 벼농사는 97%('96)가 기계화작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제작업은 최소한 2~3인이 투입되어야 하며 약제살포작업시 여름철 고온 및 바람으로 인한 농약의 인축피해 우려, 무거운 방제호스 지원작업 등은 고령자 및 부녀자로서는 감당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1994년 1년간 국제미작연구소(필리핀 소재) 전문가로 재직시 세계 주요 벼재배 국가의 직파 또는 이앙 및 본답관리기술을 검토한바 있다.

그결과 트랙터 부착 방제기가 직접 본논에 들어가 벼생육 중·후기까지 혼자서 대규모 면적의 병해충 방제 및 제초제 살포, 입제비

급('97. 7~)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농기계는 혼자서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을 손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즉, 본체에 각종 부·탈착작업기를 원터치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벼농사(로타리, 직파 또는 이앙, 방제작업, 비료살포작업 등)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의 파워핸들을 장착하여 고령자, 부녀자, 직장인 등 누구든지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작업(두둑형성, 비닐피복, 퇴·구비살포 등)에도 겸용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벼농사는 트랙터, 승용관리기, 콤바인 등 주요 3농작업기계만으로도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약 20ha(6만평)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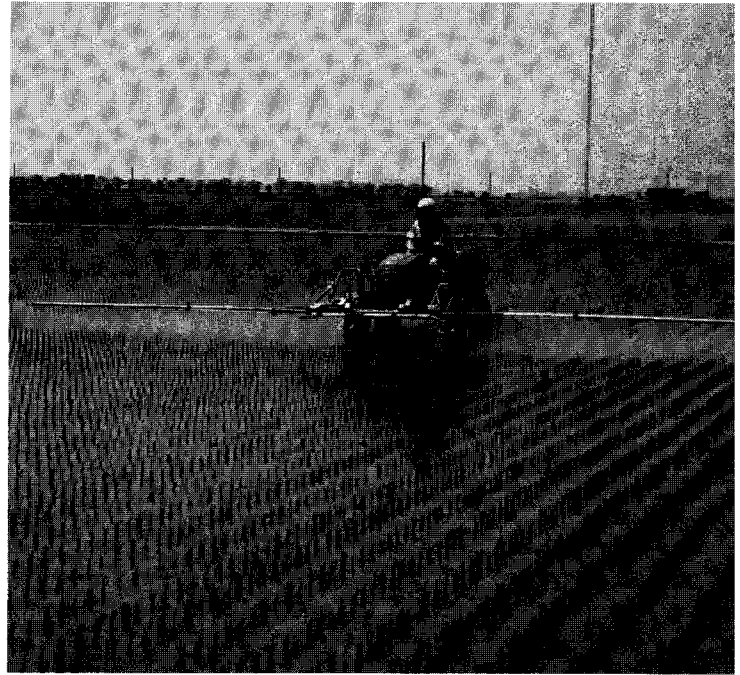
지 손쉽고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기존 이앙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파재배기술이 확립된다면 벼농사는 더욱 더 손쉬워지고 세계시장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정년·명예퇴직 없는 평생직업 자식·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런 직업

벼농사는 이와같이 수지 맞고 짓기 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즉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자기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문인(의사, 변호사 등)이 인기직종인 이유도 바로 자유로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령자, 부녀자도 혼자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완전기계화가 되면 벼농사는 더 이상 3D직종이 아닐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벼농사는 인간과의 접촉이 아닌 식물 즉 자연과의 접촉이어서 일방적이고 싸움이나 흥정이 필요없어 현대인의 직업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국 사통팔달 교통여건이 좋아도·농간 문화적차별화가 점차 없어져가는 실정이다. 특히 벼농사는 근교 도시지역에서 출·퇴근 농작업이 가능한 농사이다. 아울러 일반직장과는 달리 특별한 정년과 명예퇴직이 없는 평생직업이며 자식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또한 벼농사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공익기능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우리 나라가 벼농사로 인한 논의 저수기능은 자연댐으로서의 역할과 홍수조절을 함으로써 춘천댐 24개의 저수량과 같다는 것이다.



혼자서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을 손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다목적 승용관리기

아울러 우리 나라 전국민의 젓줄인 수돗물의 근원인 지하수를 1백58억톤정도를 공급해줌으로써 전국 수돗물 사용량의 2.7배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집중호우시 토양유실방지과 수질, 대기정화 및 녹지공간제공으로 전국민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져다 준다.

이와같이 앞으로 벼농사는 일정규모화만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수지가 맞으며, 금세기 주변 첨단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첨단 전자, 기계장비가 벼농사에 접목하게 된다면 벼농사는 더 이상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 지금이 규모화(직접지불제, 간척지배분, 휴경답경작권 획득 등)하여야 할 최적기가 아닌가 싶다. 수지 맞고 짓기 편하며, 자랑스러운 벼농사 그것이야말로 바로 「신바람 벼농사」인 것이다. **농약정보**